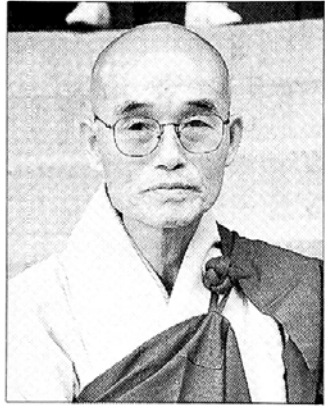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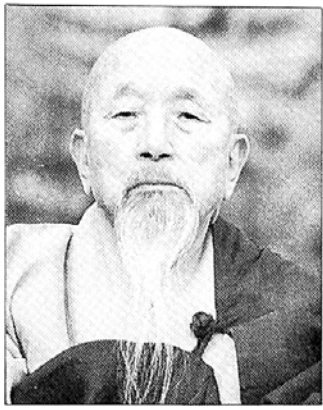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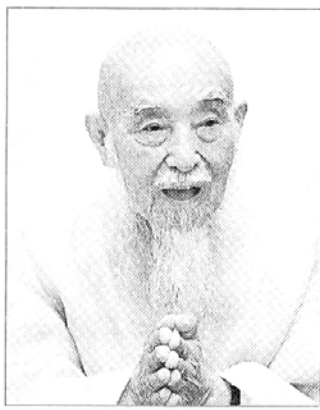
“정직 · 화합 · 신뢰 솔선수범 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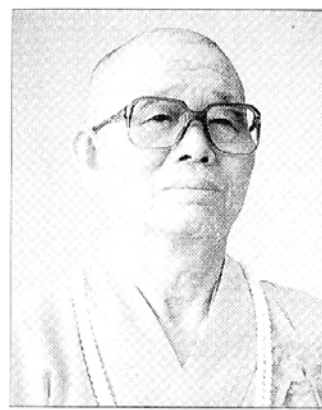
혜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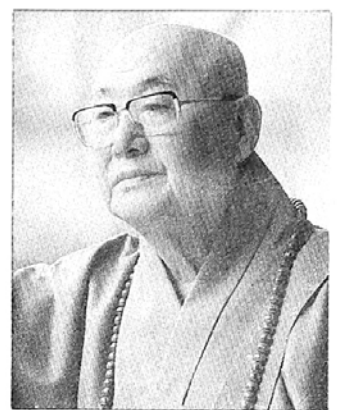
비룡 월정사 조실



관승 직지사 조실



청하 조계종 전계대화상



덕암 태고종 승정

**일체재산
국가 희사하면
천하에 복 가득**

**국민위한 정치
인과응보
믿어야 합니다**

**과시행정 삼가
분수따라 사는
국민의식 계도**

**책임지는 사회
경제회생
지름길입니다**

**사십법으로
어려운 시기
극복하세요**

대통령 선거는 정치의 시작일 뿐 더 큰 일은 선거이후에 진실하게 실천하는 일입니다. 인류 사회에서 경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국제적으로 큰 수차이며 북한에 대해서도 체면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통일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전하위복으로 삼는다면 잘못된 일이 앞으로 잘 될 증거입니다. 전 국민이 좋은 경험과 공부했으니 단결 합심해서 평화통일과 경제발전을 이루도록 대통령께서는 수백적으로 부정부패를 막고 밝은 사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낙원을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과 열쇠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멋있게 대통령의 일체 재산을 국가에 깨끗이 희사한다면 천하에 복이 가득하여 남북통일이나 경제발전이나 모든 일이 열 열 녹듯이 해결 될 것입니다.

괴로운 불구덩이 세상에서 떠난 썩치고 인생 일기의 한바탕 연극을 멋지게 하시고 복 많이 지어 어두운 사회를 밝은 사회로, 허공에 뜬 해와 같이 무사공평한 광명을 비추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함께 즐겁도록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첫발이 발라야 만리가 바르며 하나가 좋아야 백가지가 좋아지기에, 병들어 치료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척동자가 말하기는 쉬우나 팔순 노인인 행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혹한 국민의 역사적으로 빛나는 종살이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라·고려시대에는 불교국가로서 시화연풍(時化年豐)하고 국태민안(國泰民安)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성해 양반세도로 불교를 압박하고 타박하더니 결국에는 노론과 소론이 당파싸움으로 원수갚기에 바빴습니다. 조선말에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민심이 흉흉하더니, 지금이 그 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불교가 성해야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중요하게 살게 됩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모든 관리들은 불교인이든 아니든 인과를 알고 응보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인과응보를 믿으면 어떠한 사리사욕도 없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할 것입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정치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심을 가볍게 보고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가 경제 파탄을 만든 것입니다. 부디, 새 대통령은 이런 원리를 바로 알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대통령은 또한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국민 대화합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동서로 화합이 잘 안된 상태에서 남북통일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대승적인 마음으로 지역으로 나누어진 민심을 통일해야 합니다. 화합이 잘 되면 나라도 흥하게 돼 평화로운 세상이 자연히 열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정치를 하고 나라를 경영하더라도 이 진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자신의 자신의 역할에 모범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자연히 따라갈 것입니다. 대통령이 언제나 진실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아서라, 괴롭다. 누구를 믿으리오. 황희 정승, 맹사성 같이 살아가면 태평건곤(太平乾坤) 돌아와서 요순세계(堯舜世界) 일세.

서투르지도 늦추지도 말고 얽히고 설친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지역간 계층간 차별을 없애려면 걸로 드러난 것 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차별을 없애야 하며 과시적이거나 형식적이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김대중 당선자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몸으로 쓴 분입니다. 큰 고생을 이미 했기 때문에 어려운 난국을 무난히 타개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은 공중에 떠 있었는데 이는 정치인들의 잘못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문호가 급격히 개방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모적 인정만 일삼고 국민의식 계도는 소홀히 했습니다. 별레와 같은 미물들도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앞뒤를 분간 못하고 벌여 놓은 재물을 방진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분수에 맞는 생각과 생활을 하지않고 남의 눈을 의식하며 체면을 앞세우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다양한 정신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이나 종교편향적책으로는 나라를 사본오겔 갈라서 망치기만 할 따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의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려운 때를 타쳐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지금 이 시기는 우리민족의 진가를 시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만큼 김 당선자를 비롯한 위정자들은 정파를 초월해 단결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은 자기를 낮추고 솔선수범하되 거짓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방이 막힌 무문관(無門關)에도 생사일여의 활로가 있듯 지금의 난국에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국민들의 파쟁심을 극복하고 의식을 계도하는데 견마지로를 다하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살림을 사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그 가족이 편안하게 살게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책임진 사람은 그 만큼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마음 씀씀이 또한 넓고 커야 합니다.

사생의 자부(慈父)이신 부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보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위해 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의 어버이된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펴나 가길 기대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침 없이 전체를 헤아려 이익되게 하는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바로 홍익(弘益)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 말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함몰 직전의 배를 지휘하는 함장의 절박한 심정으로 그 배를 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위신한 정부의 고위층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단합해야 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 보다 국민에 앞서 근검절약하고 화합을 실천하는 대통령, 정부가 될 때라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법에서는 계를 지키는 정신을 중히 여깁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죠. 간단한 것에서부터 자신의 직분에 맞게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를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직분을 지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책임감이야말로 지금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국민정신입니다. 한 사람이 직분을 다하는 것은 한 가정을 책임지게 하고 넓게는 한 나라를 책임지게 합니다.

김대중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고자 오랜세월 노력한 만큼 그 과정과 의미를 되새겨 국정을 잘 수행하길 바랍니다. 국민화합을 위해 지역계층의 갈등을 없애고 특히 모든 종교에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불교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불교계도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이 일체가 돼 국난을 헤쳐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물질이지만 종교는 정신입니다. 물질과 정신은 별개 아닙니다. 모든 것을 편안히 안심임명에 들게 하는 것이 불교의 역할일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사십법(四攝法)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이 사십법의 실천이 요구됩니다. 보시(布施)한다는 것은 재물과 법을 서로 주고 베푸는 의미입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이웃을 돌보고 서로의 사정을 헤아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빈곤하다보면 짜증날 수도 있는데 서로 말을 조심하고 항상 주위를 조화시키도록 부드러운 말을 하도록 하세요. 그게 애어(愛語)입니다. 요즘 생활품 값이 오름다며 사재기하는 통에 동이 난다고 하는데 서글픈 일입니다.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해서 욕심을 내서는 안됩니다. 서로를 위하는 이타행을 실천하도록 유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서로 함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며 중생과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고통을 공동으로 극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부처님의 사십법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시기가 극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佛紀 2542年 戊寅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8교구 본사

직지사

조실 관응 회주 녹원
강주의 룡부주지 법등
증강 탄성 기획실장 법상
총무 법전 교무 도순
재무 정일 문화사회도진
호법 정산 포교 일공

연수원장 이병일
상임포교사 염석훈
포교주임 유선철
포교사 이동원

▶ 경북 김천시 대합면 운수동 216
TEL : 0547-436-6174
FAX : 0547-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제
주지 무공
선원장 진허
총무국장 성호
교무국장 각정
재무국장 오정
사회국장 선종
포교국장 지도
호법국장 법현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 053-982-0101~2
053-985-4404
FAX :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조실 일타
주지 법타
승가대학원장 무비
부주지 돈명
총무국장 법의
기획국장 장적
교무국장 현관
사회국장 부용
포교국장 하중
호법국장 법정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종무소 : 0563-35-3318~9
FAX : 0563-35-0293
승가대학원 : 0563-36-2381
FAX : 0563-36-2382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 설조
부주지 성천
사회 정견
기획실장 중근
포교 성형
총무 중후
호법 혜원
교무 혜분

▶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번지
TEL : 0561-746-9912

대한불교조계종 제 13교구 본사

쌍계사

조실 오고산
주지 선곡
총무 묘유
기획 중현
교무 호산
호법 성훈
포교 원정
재무 호산

신도회장 이종환(청운)

▶ 경남 하동군 화계면 운수리 208번지
TEL : 0595-83-1901
FAX : 0595-83-6084